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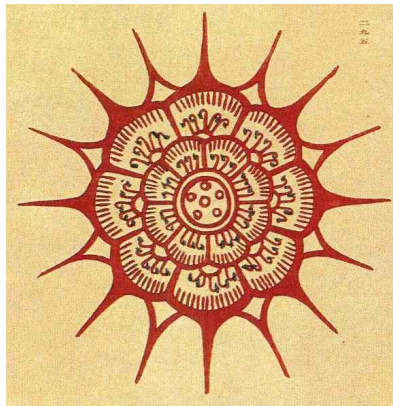
## 연화문(蓮華文)에 대한 신연구新研究, 새 주장

-상징·표현의 목적·명칭 그리고 기氣·화생化生の 표현-

조원교(趙源喬) | 214호 이우치 이사오(井內功) 기증실 | 18:00~18:30

### 1. 연화문의 상징, 표현의 목적

연꽃은 탁월하게 길고 고운 향기와 고고한 자태(물 속 진흙에 뿌리를 서리지만 물 위로 꽃과 연잎을 보이는 모습이나 생태 환경)를 지녀 일찍부터 많은 사랑을 받았고 즐겨 표현하였다. 특히 태양의 출몰에 따라 며칠 동안 열고 닫고를 반복하는 특색으로 인하여 일찍부터 태양을 상징하는 꽃(도1)이 되었다. 이 가운데 태양에서 비롯된 것은 위대한 힘(능력), 기(氣運), 生命(化生 즉 생명의 변화 포함), 영원불멸, 탄생, 재생, 하늘, 조물주, 신과 부처 등에도 증폭, 적



(도1)태양처럼 표현한 연꽃(模寫圖)

고구려, 5세기 후반, 중국 輯安縣 蓮花塚, 조선총독부 편, 『朝鮮古蹟圖譜』, 1915년, 도295

용되었고, 고운 향기와 고고한 자태 그리고 생태 환경에서 비롯된 것은 선비, 군자, 우주의 상징으로도 전개되었다고 본다. 기타 여러 가지가 복합되며 길상吉祥, 상서祥瑞, 행복한 곳(낙원 포함), 신비로움이나 신이神異 또는 그 영역으로도 표현되었다. 1)

필자는 연꽃의 상징과 표현 목적 가운데 태양을 상징하는 것, 기氣(기운)과 화생化生 표현이 가장 중요하다고 본다. 왜냐하면 태양 표현이 가장 오래되고 연면連綿하게 이어졌다는 점, 기(기운)와 화생이 모든 표현을 아우르고 있기 때문이다. 연화문(도상圖像 포함)은 생생한 기·화생과 관련되므로 더욱 다양하게 표현되었다.

### 2. 연화문의 명칭 분석·교정矯正

현재 학계에는 연화문, 연화당초문(인동당초문), 보상화문, 여의두문, 인동문, palmette(忍冬의 서양西洋 명칭)란 명칭을 사용한다. 이 가운데 연화당초문, 보상화문, 여의두문은 여러 가지 모습으로 표현되는 연화문인줄 모르고 즉 깊은 분석 없이 외형만으로 구분하여 생긴 잘못된 이름이다.

1) 기氣는 기운, 힘, 능력, 에너지, 생동生動이다. 이 기氣의 표현 가운데 하나가 化生이다. 화생은 생명 탄생의 표현이자 도상圖像이다. 화생은 생명을 향한 일련의 변화이며 마지막 단계에 이르는 중간 과정도 포함된다. 연꽃에서 생명이 변화되는(나오는) 연화화생蓮華化生도 화생 가운데 하나이다. 이상의 주장은 아래에 소개하는 필자가 작성한 참고문헌 목록에 수록되어 있다. 대표 논문은 「蓮華化生에 등장登場하는 장식문양裝飾文樣 고찰考察」, 『미술자료』 제56호이다.

연화당초문은 연꽃과 당초문이란 다른 두 문양이 단지 결합된 문양이라 하거나 또는 울동적인 표현 정도로만 이해하는데 그쳤다. 2) 연화당초문(인동당초문)에서 당초란 용어는 본래 우리나라에는 없었다. 이는 당唐에서 3) 일본에 전래된 풀 문양 이름, 일본 입장에서 만든 왜색 용어이다. 우리나라에는 일본 학계에서 만든 이 잘못된 용어가 근대 학문의 도입이후 널리 통용되고 있다.



따라서 이 글에서 연화문의 다양한 모습(특히 기·화생의 변화 모습)을 쉽고 명확하게 전달하고, 왜색 용어 추방 목적으로 몇 용어를 만들었다.

(도2)기와 백제, 600년경, 지름 15.0, 부여 능산리 寺址 출토, 국립부여박물관 소장

첫째 간단한 모습으로 자방과 연꽃잎(연판)으로 구성된 모습을 ‘원原 연화문’<예: (도2)>으로 정하였다. 이 용어를 정한 것은 이 원原



연화문에서 기·화생을 적극적으로 표현한 새 연화문이 출발하는 경우가 많고 또 모습이 여러 연화문 가운데

(도3)연속 반복 덩굴 연화문이 있는 기와(도면圖面) 백제, 7세기, 고 5.8, 익산 미륵사지彌勒寺址 출토, 국립익산박물관 소장, 도면 국립문화재연구소 편, 『우리나라 전통무늬』 6 와전瓦塼, 2013년, 151면.

데 자연 생태계와 가장 가깝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연화문 중에서 원原 연화문이 가장 많은 것은 아니다.

둘째 연꽃 가운데 덩굴 문양이며 울동적인 모습, 움직임이 강한 모습, 역시 기·화생을 적극 표현한 연화문을 흔히 연화당초문으로 부르는데 이 글에서 ‘덩굴 연화문’(도3)으로 정하였다.

덩굴 연화문은 대개 공간의 상황을 감안하여 길고도 가늘게 변형시켜 만들었다. 그리고 움직임, 동작, 활발함, 기운 등을 더욱 생생하고 강렬하게 전달하는 생성, 발전의 모습이다.

필자는 단순한 연화문에서 기·화생을 적극 표현한 덩굴 연화문에 이르는 과정을 생성, 성장을 편의상 아래와 같이 3단계로 정하고 명칭을 정하였다. 4)

2) 기존 학계와 달리 필자는 「蓮華化生에 登場하는 裝飾文樣 考察」 등에서 단순한 장식 문양으로 그치지 않으며 연화문의 다양한 모습, 기, 화생을 담은 표현이라고 줄곧 주장하였다.

3) 일본에서 당唐은 중국의 당唐만이 아니다. 대륙 특히 우리나라가 더 관련이 깊다.

4) 연꽃에서 연꽃잎을 비롯한 생명체가 나오는 연화화생 도상(표현)은 일본인 요시무라 레이吉村伶가 최초로 연구하였다. 그는 불교적 입장으로만 바라보았고 연화문과 화염문 이외의 다른 문양을 언급한 바 없다. 그러나 필자는 이 도상(표



첫 단계<예: (도4)~(도12)>는 대개 연꽃잎(연판蓮瓣)의 內·外에서 출발한 첫 순간, 또는 연꽃잎과 관계없는 첫 순간이다. 모습은 대개 연꽃잎을 길쭉하게 그러나 짧게 늘인 모습이다. 기타 짧은 난초잎(또는 불로초)처럼 보이는 풀을 여럿 나타낸 경우도 있다. 이 글에서 이들 5) 모두 ‘첫 연화문’이라고 정하였다. 중판重瓣·복판復瓣·간판間瓣이라 불리는 연꽃잎(연판)들도 첫 연화문이거나 또는 내부에 첫 연화문이 있다.

#### <예 1>첫 연화문(1마디 또는 1굽이)



(도4-1)첫 연화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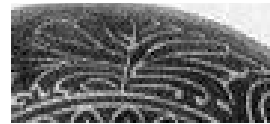
(도4)기와 고구려, 대동군 토성리 출토 <원연화문의 4엽 모두 안에 첫 연화문이 있다.>



(도5-1)첫 연화문



(도5)기와 통일신라, 경주 안압지 출토<연꽃잎(연판)이 모두 첫 연화문이다.>



(도7-1)첫 연화문



(도6-1)첫 연화문



(도6)분청사기 매병 조선, 15세기, 고 31.0, 서울 호림박물관 소장<맨 위는 연속 덩굴 연화문이다.>



(도7)청자 대접 고려, 14세기, 고 8.2,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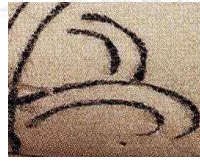
현)은 불교 전래 이전부터 기·화생을 표현한 도상, 삼라만상을 표현한 도상, 연화문·화염문을 포함한 이외 여러 문양들이 상호 동격同格·호환互換·교호交互 관계에 있다고 보았다. 특히 불교 전래와 더불어 중국으로부터 전래된 것이 아니라 (도32)에서 보듯 동북아시아에서 우리 겨레가 가장 앞서 있다. 이와 관련된 필자의 연구 논문들은 아래 참고문헌에 수록되어 있다.

5) 짧은 난초잎처럼 보이는 풀 문양<예: (도7-1)(도6-1)도11-1)(도12-1)>은 민화 등에서 불로초 모습(문양)과 비슷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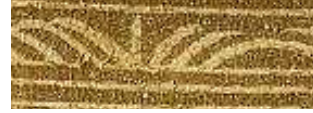




(도8)백자 잔과 받침 조선, 15세기, 잔  
고 5.6 받침 고 4.1,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도8-1)첫 연화문



(도11-1)첫 연화문



(도10-1)첫 연화문



(도10)청화백자 합 조선, 1857년경,  
고 15, 구경 25, 국립중앙박물관 소  
장



(도11)분청사기 접시 조선, 15세기, 구경 8.4, 호림박물관 소장



(도11-2)첫 연화문



(도11-3)첫 연화문



(도12-1)첫 연화문



(도12-1)중간 연화문



(도12)분청사기 병 조선, 15~  
16세기, 고 30.1, 삼성미술관  
리움 소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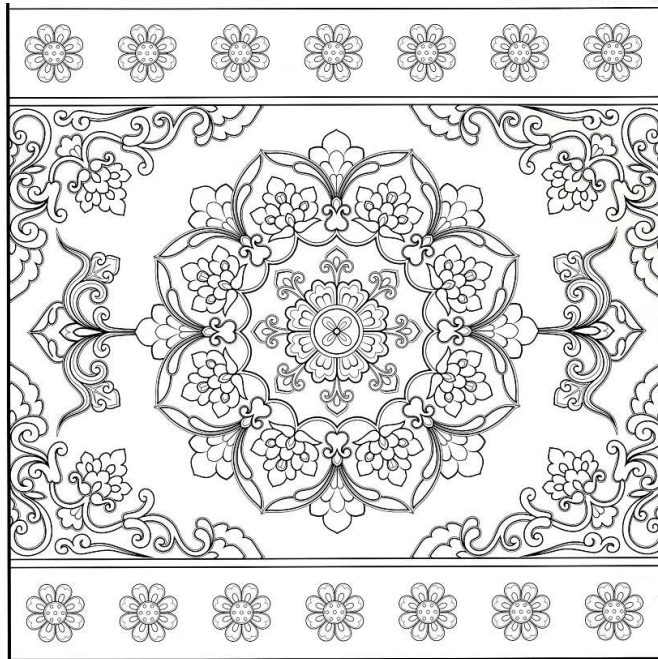
<예 2>중간 연화문(2~3굽이)



(도13-1)중간 연화문



(도13-2)중간 연화문



(도13)벽돌(圖面) 통일신라, 7세기 후반,  
35.0.×31.5, 경주 안압지 동편 출토,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 소장,  
도면 『우리나라 전통무늬』 6 瓦塼, 104면. <현재 학계에서 이처럼  
연꽃잎(연판)이 복잡해 보이면 보상화문으로, 그 연꽃잎(연판)  
은 여의두문으로 각각 부르고 있다. 모두 잘못된 명칭이므로  
이 논문에서는 모두 연화문으로 수정하였다.>



(도14)분청사기 장군 조선, 15세  
기 후반~16세기 전반, 고 17.7,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도14-1)중간 연화문



(도15-1)중간 연화문



(도15)철화청자 병  
고려, 12세기, 고  
23.6, 호림박물관 소  
장



(도15-2)중간 연화문



(도16)분청사기 호 조선, 15세기, 고 26.3, 호림박물관 소장, 호림박물관, 『분청사기제기』, 도 37. <중간 연화문의 위 측 이 도 자기의 가운데 문양은 연속 덩굴 연화문이다.>

(도16-1)중간 연화문



(도17-1)중간 연화문<이 아래 문양은 연속 덩굴 연화문이다>



(도17)청자 대접 고려, 12세기 중엽 傳 개성 文公裕 묘 출토, 구경 12, 국보 제115호,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 <예 3>연속 덩굴 연화문(3굽이 이상)



(도18)백자 호 조선, 18세기, 높이 26.5, 보물 제240호,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도18-1)연속 덩굴 연화문



(도18-2)<이 연화문은 현재 학계에서 여의두문이라고 잘못 불리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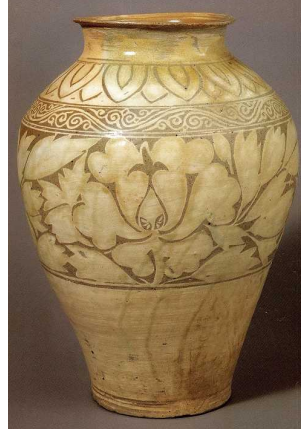




(도19)분청사기 장군 조선, 15세기, 고 16.0, 개인 소장, 삼성문화재단, 『분청사기명품전』 2, 도 62 <點文이 덩굴 연화문과 같이 있다.>



(도19-1)연속 덩굴 연화문



(도20)분청사기 壺 조선, 15세기, 고 38.0, 삼성미술관 리움 소장



(도20-1)연속 덩굴 연화문



(도21)분청사기 호 조선, 15세기, 고 39.1, 삼성미술관 리움 소장



(도21-1)연속 덩굴 연화문



(도23)분청사기 壺 조선, 15세기, 고 14.3,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도22-1)연속 덩굴 연화문



(도22)철화청자 매병 고려, 12세기, 25.0,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도24)백제 백제, 600년경, 길이 28.0, 부여 군수리 절터 출토, 국립부여박물관 소장

문이 있다. 이로 보아서도 두 문양은 모습만 다른 같은 문양인 연화문이다

셋째 단계는 중간 연화문보다 더욱 길게 자란 모습, 기 화생이 더 진전된 모습을 ‘덩굴 연화문’(<예: (도18)~(도23)>>이라 정하였다. 이 문양 역시 본래 연화문임을 증명하듯 연화문과 닮아 있고 중간에 중간 연화문(연꽃봉오리 포함)이 함께 있다. 이 덩굴 연화문이 연속으로 반복하면 연속 반복 덩굴 연화문이라 정하였다. 이 덩굴 연화문의 종래 일본식 명칭은 연화당초문이다. 6) 아래는 이처럼 연화문을 크게 3 단계로 구별한 몇 사례이다. 7)

앞서 서술하였듯 보상화문과 여의두문은 연화문인데 일본인 학자들이 별개의 문양으로 오판 誤判하며 별칭인 되었다.

보상화문은 보배로운 상相(모습)의 꽃이란 뜻을 취한 이름이다. 이 문양은 연꽃이 기·화생의 표현으로 다소 복잡하게 된 모습이다.



(도26)여의 조선, 18세기, 길이 49.4,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여의두문은 꽃잎이 여의두如意頭(여의如意의 머리)와 흡사하다 하여 만든 이름이다. 그러나 이 문양은 여의如意(도26)의 머리와 모습만 유사할 뿐 더

이상 여의如意와 관계가 없다. 즉 연꽃잎(연판蓮瓣) 표현 그 자체이며, 대체로 두 모습이다. 하나는 연꽃잎이 첫 연화문 형태로 변화하는 모습, 다른 하나는 세 연꽃봉오리를 합친 모습(사실은 중앙 연꽃봉오리와 그 좌우로 화생된 연꽃을 모두 합친 모습의 윤곽선)이다. 이 두 문양이 연화문인 것은 연꽃봉오리 모습이고 연화문과 같은 곳에 있으며, 연화문처럼 기·화생을 표현한 데서 증명 된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현재 학계에서 특별한 검증도 없이 사용하고 있는 연화당초문·보상화문·여의두문을 모두 연화문으로 수정하였다. (도18-2)·(도29)~(도31)에서처럼 이 문양은 연화문이 배치되는 곳에 있고 윤곽 등 전체 모습도 연화문 연꽃잎과 큰 차이가 없다. 따라서 기존에 여의두문이라 불린 이 문양은 연화문이 분명하다.

6) 덩굴문(연속 반복) 덩굴 연화문을 조선시대 문헌에서는 파련波蓮·초룡草龍 등으로 불렀다. 초문草文·파문波文이라 한 것인데 이는 겉모습만 염두念頭한 이름이다.

7) 필자가 정리한 이 명칭들은 엄격히 구분할 수 없는 애매한 경우도 많다.



<예 3>寶相華文으로 잘못 불리던 연화문



(도27-1) <중간 중간에 첫 연화문(총 5개)가 있다>

(도27)청화백자 합 조선, 1857년경, 고 15, 구경 25,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도28-1)<原 연화문에 가까운 첫 연화문에서 다시 첫 연화문이 나오는 중이다.>

(도28)청화백자 합 조선, 19세기, 구경 25.6,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예 5>여의두문如意頭文으로 잘못 불리던 연화문



(도30)청자 접시 고려, 14세기, 고 3.3,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도29)청자(鐵彩) 병 고려, 12세기, 고 25.3, 국립중앙박물관 소장<가운데 문양은 연속 덩굴 연화문이다.>



(도31-1)

(도31)청자, 고려, 12세기, 고 23.5, 개성 부근 출토,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 3. 기氣·화생化生을 표현하는 연화문

연꽃은 만물을 탄생시키는 기·화생의 능력을 가졌다 여겼다. 따라서 원原 연화문부터 덩굴 연화문에서 物象이 탄생하는 과정을 포함한 극적인 장면이 많다.

(도32)은 우리 겨레의 역사 문화(홍산문화紅山文化, 고조선, 고구려) 강역 안에서 출토된 그릇에 표현한 그림이다. 불교 전래 이전 약 3백 여년 전에 연꽃으로부터 신선을 포함한 물상들이 탄생되는 모습이 매우 상세하게 묘사되어 있다. 이는 현재까지 알려진 동북아시아 최초의 연화화생 도상이다. 이처럼 다양한 물상物象이 기·연화화생과 연계되어 있는 그림은 ‘원原 중국 지역(지금의 중국 하남성·섬서성 일대)’에는 없고 오직 백제금동대향로 등 우리 겨레 역사문화 유산으로만 계승되었다. 고려·조선시대 도자기 문양(그림 포함)은 그 가운데 하나이다.



(도32)博山 丹爐(部分) 1세기 前半, 고 22, 중국 내몽고 包頭市 召灣 출토, 일본경제신문사, 『中國內蒙古北方騎馬民族文物展』, 일본 東京, 1983년, 도 4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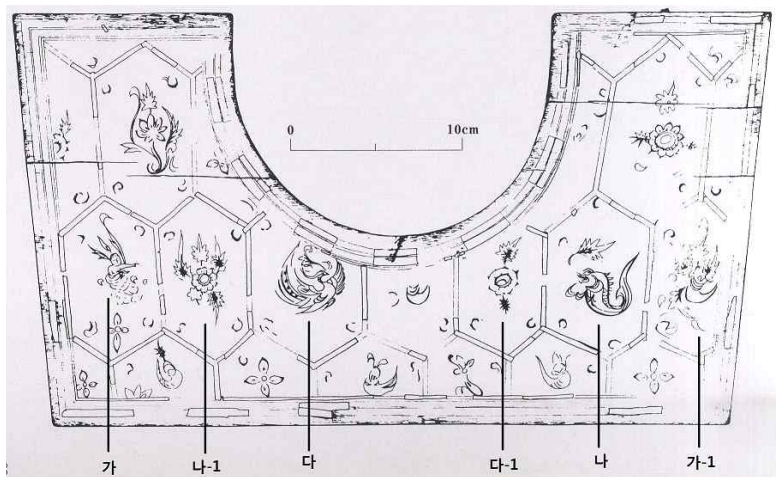
(도33)연꽃에서 화생하는 인물 대동군 장천리 1호 무덤, 고구려, 6세기



(도34)금동 광배(부분) 7세기초, 中尊 高34.2, 일본 동경국립박물관 소장<덩굴 연화문에서 화생한 연꽃에서 화생하는 化佛의 모습>



(도32-1)博山 丹爐(部分)



(도35)백제 무령왕비 頭枕(圖面) 두침은 공주 무령왕릉 출토, 삼국시대(백제), 6세기 前半, 고 20, 국립공주박물관 소장; 도면 국립공주박물관, 『龜甲文과 鬼面文』, 1990년, p.23 轉載<가(신선), 나(龍), 다(봉황), 가-1. 나-1 다-1은 신선·용·봉황 등으로 화생될 연화문의 여러 모습이다.>



## 〈참고문헌 參考文獻〉

- 趙源喬(趙容重), 「百濟 佛像光背에 關한 研究」(弘益大學校 大學院 美術史學科 碩士學位論文, 1990.8).
- , 「益山 蓮洞里 石造如來坐像 光背의 圖像研究」, 『美術資料』 第49號(국립중앙박물관, 1992.6).
- , 「中國 博山香爐에 關한 考察(上)(下)」, 『미술자료』 제53호(1994.6)제54호(1994.12).
- , 「蓮華化生에 登場하는 裝飾文樣 考察」, 『미술자료』 제56호(1995.12).
- , 「環頭大刀의 環頭內에 登場하는 圖案考察」, 『佛教美術協會助成研究-研究成果報告』(日本 奈良 國立博物館, 1996.3).
- , 「動物의 口에서 비롯되는 化生 圖像 考察」, 『미술자료』 제58호(1997.6).
- , 「蓮華化生山 圖像과 그 交互에 關한 연구」, 『미술자료』 제60호(1998.11).
- , 「朝鮮總督府 건물의 문양에 對한 考察」, 『中央史論』 第十·十一合輯(중앙대학교 사학과 1998.12).
- , 「海中神山에 關한 文獻과 圖像 研究」, 『미술자료』 제63호(1999.11).
- , 「百濟金銅大香爐에 關한 研究」, 『미술자료』 제 65호(2000.12).
- , 「扶餘 外里 出土 백제 文樣塼 研究」, 『미술자료』 제74호(2006. 6).
- , 「益山 王宮里 五層石塔 發見 舍利莊嚴具에 對한 研究」, 『百濟研究』 第49輯(大田 忠南大學校 百濟研究所, 2009.2).
- , 「公州 金鶴洞 절터 出土 石造 光背에 關한 研究」, 『考古學誌』 第17輯(국립중앙박물관, 2011.12).
- , 「百濟 武寧王陵 出土 銀製托蓋에 對한 研究」, 『東垣學術論文集』 第14輯(國立中央博物館·韓國 考古美術研究所, 2013.5).
- , 「高句麗 기와 文樣에 對한 研究」, 『考古學誌』 제19집(2013.12).
- , 「韓國 古代 氣 表現에 對한 研究」, 『문화와藝術研究』 第四集(서울, 東方文化大學院大學校, 2014.12).
- , 「韓國의 古代 ‘神山 世界’ 圖像 研究(上)(下) -三國時代까지, 氣 表現 中心으로-」, 『韓國思想과 文化』 第78輯 2015.6; 第79輯 2015.9(韓國思想文化學會)
- , 「扶餘 陵山里 出土 百濟金銅大香爐 研究」(서울 동방문화대학원대학교 박사학위논문)(2016.8).
- 요시무라 레이吉村怜, 『中國佛教圖像の研究』(東京 東方書店, 1983).

## 특별전 : 창령사 터 오백나한 “행복을 깨닫는 존재, 나한 그리고 우리”

강삼혜 | 121호 특별전시실 | 18:00~18:30

### 세상을 향해 나오신 열세 분의 나한

창령사 터 오백나한상은 2002년 영월군 서면 신천리에서 농사를 짓던 김병호 씨에 의해 발견되었으며, 강원문화재연구소의 발굴 도중 “蒼嶺창령”이 새겨진 기와가 나와 사찰 이름도 알게 되었습니다. 발굴 후 국립춘천박물관으로 귀속된 나한의 수량은 총 317점으로, 완형의 상像은 64점이었습니다.

2017년 7월 초, 국립춘천박물관 개관 15주년을 맞아 재개관 전시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26점의 나한상 머리와 신체를 찾아 접합하여, 12점의 나한과 한 점의 미륵보살상이 복원되었습니다.

복원된 미륵보살상(도1)은 석가불의 협시로 추정되는데, 나한상과 같이 장삼 위에 가사를 입고 있지만 보살상처럼 머리에는 육계肉髻(살상투)를 갖추고 보관을 쓰고 있습니다. 머리에 쓴 보관 앞에는 화불과 같은 문양이 새겨져 있어서 통일신라 감산사 석조미륵보살입상(719년, 국보 제81호)의 예와 같이 미륵임에도 불구하고 보관에 화불이 새겨져 있습니다.



도1. 화불化佛을 보관寶冠에 새긴 미륵보살, 높이 59.0, 고려말 조선초, 영월 창령사 터 출토, 유물번호 춘34473+34286 접합



도2. 가사를 덮어쓴 나한, 높이 32.8, 고려말 조선초, 영월 창령사 터 출토, 유물번호 춘천34263+34176 접합

나한의 복식 중 머리 위까지 가사를 덮어쓴 모습을 복두의覆頭衣 나한이라고 합니다. 창령사 터 나한상은 유난히 가사를 뒤집어쓰고 선禪 수행하는 모습으로 조각된 상이 많습니다.

가사를 덮어쓴 복두의 도상으로 대표되는 인물은 중국 남북조시대 선불교를 전한 달마達磨의 모습이다. 달마와 관련된 일화가 전해옵니다. 어느 눈 내리는 겨울날, 가사를 덮어쓰고 9년째 면벽 수행을 하는 달마를 찾아간 혜가慧可(487~593) 스님. 달마가 그를 돌아보기를 눈 속에 파묻히는 줄도 모르고 기다리다 마침내 자신의 왼팔을 잘라 버린다. 혜가가 바친 팔을 보고 서야 달마는 고개를 돌립니다. “그대 왜 왔는가?” “마음이 괴롭습니다.” 그러자 달마가 측 손을 내밀며 말한다. “그 마



음을 이리 가져오너라.” 가사는 어쩌면 이처럼 치열하게 구도의 길을 걸었던 옛 선승들의 표식이었을 것입니다.

새로 복원된 복두의 나한상(도2)은 두 손을 가사 밖으로 빼 마치 “그 마음을 이리 가져오너라” 고 말하는 듯합니다. 얼굴과 손을 제외하고는 모든 상을 가사 속에 감추고 있어 면벽 수도하며 달마가 이르고자 했던 무아적정無我寂靜의 경지에 도달한 맑고 깊은 내면을 조형으로 이룩하였습니다.

### 행복을 깨닫는 존재, 나한 그리고 우리

부처와 함께 고행하던 다섯 비구는 녹야원에서 부처의 첫 설법을 듣고 아라한이 되었습니다. <묘법연화경> 오백제자수기품五百弟子受記品에는 이 다섯 아라한 중 가장 나이가 많은 교진여喬陳如가 오백나한과 함께 미래에 부처가 될 것이라는 수기 받고 감사하며, “옷 속의 보화” 우화를 들려줍니다. 친구가 자신의 옷 솔기에 값비싼 보석들을 꿰매놓은 줄 까마득히 모르고 곤궁한 삶을 살았던 어느 남자의 이야기입니다. 그 친구가 바로 부처이며, 부자인줄 까마득하게 몰랐던 그 남자는 우리 중생입니다.

우리의 얼굴과 표정이 그대로 투영된 친근하고 정겨운 영월 창령사 오백나한상들은 만물에 다 부처의 성품이 깃들어 있어서 누구나 깨달으면 부처가 될 수 있으며, 우리 역시 나한과 같은 행복한 존재라는 것을 조형미로 보여줍니다.



도3. 전시 전경: 당신을 닮은 얼굴-회로애락의 초상

## 개성 현화사 석등의 복원

김중우 | 역사의길(경천사10층석탑 앞) | 19:00~19:30

개성 현화사 석등은 경기도 개풍군 영남면 현화리 현화동 현화사터에 남아 있던 것으로 고려 현종 10년(1020)에 세워진 것으로 추정됩니다. 석등의 구성은 기대基臺와 하대석으로 구성된 하대부와 고복형鼓腹形 간주석, 사각의 화사석火舎石, 방형 옥개석, 상륜부로 구성되어있으며, 높이는 4.2m 정도로서 웅장하여 모습을 보여줍니다. 석등은 일제강점기인 1911년 서울로 옮겨졌고, 이후 덕수궁으로 이전되었다가 다시 경복궁의 국립중앙박물관 정원에 전시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손상된 부분이 많아 파손위험이 높아 1986년에 해체되어 격납되었으며, 2001년 4월 보존처리가 완료됨에 따라 구 국립중앙박물관 정원에 다시 전시되었습니다. 그러나 외부노출 전시로 인하여 과거 옥개석에 사용된 장식 보조물(철)의 부식으로 인한 암석 균열과, 과거 사용된 복원재의 풍화 및 접착제의 열화 등 으로 인하여 안전한 보존관리를 위해 2017년 다시 해체하여 2018년부터 석등의 보존처리를 실시하였습니다. 보존처리 과정으로는 석등의 상태조사를 시작으로 기초자료 조사, 정밀 3D 스캔, 표면의 오염물 제거, 과거 사용되었던 복원재료들의 제거, 풍화된 암석의 강화처리 및 균열부의 보강처리, 결손부분에 대한 신석접합과정, 표면 색맞춤과정 등을 통하여 보존처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현화사 석등은 2019년 5월 이후 보존처리가 완료될 예정이며, 이후 박물관 정원에 재 전시될 예정입니다.



도1. 보존처리 전 전경



도2. 석등 보존처리 과정





## 저항과 은둔의 서화

권혜은 | 기획전시실 | 19:00~19:30

1910년 한일병합조약으로 국권을 상실한 경술국치庚戌國恥 이후, 조선의 문인과 관료들은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되었고, 글과 그림은 이들의 결단과 선택을 드러내는 중요한 매체가 되었습니다. 이전까지 활발한 활동을 펼쳤던 오세창吳世昌(1864~1953)은 1919년 3.1운동에 동참하기 전까지 역관이자 서화 수장가였던 아버지 오경석吳慶錫(1831~1879)에 이어 서화의 역사를 정리하면서 독립의 길을 모색하였습니다. 항일 의병활동과 상해임시정부에 참여했던 김진우金振宇(1883~1950)는 화살같이 날카로운 묵죽도로 저항의 의지를 드러냈고, 묵란도를 잘 그렸던 이회영李會榮(1867~1932)은 그림을 팔아 독립운동을 이어갔습니다. 고위관료였던 윤용구尹用求(1853~1939)는 일제가 내린 작위를 거부하고 은둔하며 서화가로 여생을 보냈습니다. 한편 사진 도입에 선구적 역할을 했던 황철黃鐵(1864~1930)은 일본으로 망명해 서화가로 활동하며 조용히 생을 마감하였고, 지운영池雲英(1852~1935) 역시 은둔의 서화가로 활동하였습니다. 경술국치 이후 각자 다른 방식으로 저마다의 길을 걸어갔던 이들은 우리 근대 화단의 또 다른 모습입니다.



안중식, <탑원도소회지도塔園屠蘇會之圖>, 1912년, 종이에 엮은 색, 간송미술문화재단